



## 나와 함께 깊어가는 바다

한 현 미\*

가끔 꿈을 꾸다.

꿈속에 나는 잔뜩 웅크린 채 물 속을 떠다닌다. 벌거벗고 조그만 나는 그렇게 밤새 엄마의 양수 위를 떠다닌다. 그런 완벽한 고요함이고 평화다.

열 여섯... 화창한 봄, 내 아버지는 돌아가셨다.

엄마가 몇 번씩이나 까무라치고, 언니들이 울다 지쳐 숨쉬는 일마저 버거워 할 때도 나는 그 상황을 현실로 받아들이지 못했다. 나는 하얀 상복을 입고 아빠의 사진 옆에 앉아 눈물 한 방울조차 흘리지 않았으며 고모들은 그런 나를 보고 '독한 년'이라고 욕했다.

아버지를 묻고 오던 날... 나는 꼬박 네 정거장을 걸어 바닷가에 갔다. 병원에서 두달을 지내던 내 아버지는 그렇게도 바다를 보고 싶어 하셨다. 내 아버지의 고향은 바닷가가 아니며, 그 혼한 뉘시에 조금의 관심도 없었고, 기껏 여름 휴가라도 갈라치면 끝까지 산을 고집하던 내 아버지가 정작 병상에서 보고 싶어 하셨던 건 바다였다.

...화창하던 그해 봄바다는 쪽빛이었고, 나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삼일 만에 목을 놓아 울었다.

열 여섯 그때부터였다. 나는 나를 방어하고, 나를 옹호하는데 여념이 없었다. 나는 나를 질책하는 사람에게 도리어 나를 합리화시키기 일쑤였고, 그럼에도 끊임없이 나를 지적하면 짐짓 깨달은 척, 뉘우친 척으로 그

\* 국제대학 동아시아학과

상황을 모면해 가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나는 내 교만과 기만을 당당함으로 잔뜩 오인하고 나이를 먹어갔으며, 그런 내 방어나 교만은 쉽게 들통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내가 잘해내고 있는 줄만 알았다.

대학교 1학년 때였다. 위로 셋이나 있는 언니들 덕분에 어설픈 기대, 그러니까 TV드라마에서나 보는 잔디밭에서의 수업이나 친구들과 무작정 떠나는 배낭여행 같은, 하려고 하면 할 수도 있지만 쉽게 되지않는 것들에 대한 기대는 일찍이 버리고 시작한 대학 생활이었다. 그런만큼 평범했고, 평범했기 때문에 귀중한 시간들이었다. 그 평범을 유지하기 위해 나는 언제나 그러했던 것처럼 적당한 연기를 해야 했다. 그 연기는 나를 성(城)안에 가두어 두면서도 타인의 눈에 한없는 자유를 꿈꾸는 뺨뺨용처럼 보이게 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워낙에 몸에 배어버린 것이라 그리 어렵지도 않았고, 뺨뺨용을 동경하는 나의 모습은 사람들로 하여금 1학년답지 않은 성숙함과 인생에 대한 이해로 해석되어 사람 사귀기에 큰 도움이 되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꽤나 만족스러운 학교 생활을 해나갔으며, 나에게 대한 평도 결코 나쁘지 않았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학년이 되었을 때, 나는 학생회에 발을 들여놓았다. '선진 국장'이라는 감투와 나를 따르는 후배들의 눈빛, 학교 곳곳에 걸려있는 플랑카드 속의 내 글씨... 그런 것들은 나를 우쭐하게 만들기에 충분했고, 나는 내 오만함을 충족시켜주는 학생회 내 자리가 좋았다. 그러던 4월...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누군가 얘기했던 것처럼 내게도 또 다시 힘겨운 4월이 되풀이 되었다.

그날은 회의가 있었다. 간만에 있는 학생장들과 회의라 미리 준비하려고 바쁘게 준비를 서두르는 내게 선배 한 명이 찾아왔다.

“현미야! 나랑 자갈 마당 가서 데이트나 한판하자.”

낮술을 한잔했는지 불이 발그레해진 선배는 내게 데이트 신청이라고 하기엔 왠지 심각한 어투로 말을 건넸다. 조심스레 따라 나가 자갈 마당 한켠에 나란히 앉아 몇분의 시간을 죽일때까지 선배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한참만에 입을 연 선배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옥타브정도 낮게 깔려 있었다.

“주제 넘는 말 한마디하려고 니를 불렀다. 술김에 하는 말이라고 들어도 좋고, 술김에 용기냈다고 생각해도 좋은데 어쨌든 오늘은 니랑 얘기 좀 해야겠다. 여기 좀 봐라. 이 앞에 바다가 초록색이잖아. 어릴 때 불렀

던 노래 기억나나? 초록빛 바닷물에 두 손을 담그면… 그 노래 말갈지도 않은 거다. 바다가 썩으면 초록색이 되거든, 그러니까 초록빛 바다에 손을 담그면 피부병이 생기지… 사람들은 그냥 보고 색깔만 멀쩡하면… 걸 보기만 멀쩡하면 왜 다 괜찮은 줄 아는지… 그게 아닌데… 속에서는 고름이 나는지도 모르는데… 현미야! 니가 초록색 바다 같아서… 걸으로만 씩씩한 것 같아서 선배는 니 보기가 안쓰럽다…”

뒤에 말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을 만큼 당황했다.

‘보기에 좋은 초록색 바다… 걸으로만 지극히 멀쩡한 바다… 그 바다와 닮은 나…’

순간, 간파 당한데 대한 당혹스러움과 내가 쌓아 놓은 성(城)이 무너지는데 대한 서글픔으로 눈물이 났다.

그 날 내가 회의에 참가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얼마 후 내린 결정은 학교를 쉬는 것이었다.

학교를 쉬는 동안 그 동안 꼭 해보고 싶었던 여행을 가기로 마음먹었다. 혼자 하는 일에 익숙하지 못한 내게 혼자 떠나는 여행은 마음먹는 것조차도 힘이 들었다. 그리고 결정한 곳은 통영이었다.

온 사방이 바다인 그 곳에서 나는 생각을 했다. 보통 생각은 ‘사고’를 전제로 하지만 당시의 나는 단지 생각만 했다. 머리를 회전하는 것이 아닌 모든 사고를 정지시키기 위한, 마음을 비우기 위한 생각을 했다. 그러나 그 ‘생각하기’마저 성공하지 못한 채 나는 시간을 흘려 보내고 있었다.

통영의 바다는 넓었다. 발을 담그면 그 발에 난 조그만 점까지 선명하게 보일 만큼 바다는 깨끗했다. 나는 차마 그 바다 앞에서 열 여섯 그때처럼 청승맞게 울 수가 없었다.

모든 것을 받아들여 정화하는 바다… 모든 것의 시작이고 끝인 바다…

코끝을 자극하는 비릿한 바다 냄새… 정복당하지 않은 거친 숨소리…

넓은 횃집에서 음식을 나르던 소년의 등에 묻은 짙은 바닷물의 흔적…

나는 차라리 마음을 비우는 작업을 포기하고 받아들이는 일에 전념하기로 했다. 내게 닥친 지금의 상황, 내가 깨달아야 할 수 많은 어리석음, 나를 속이고 또 내 주변을 속여왔던 나의 성, 그리고 이미 무너져버린 그 성의 초라한 모습까지 나는 받아들이려고 노력했다. 바다는… 그 넓고 깨끗하던 바다는 내 수궁에의 노력을 한껏 도와 주었다. 꿈속에서 떠다니던

엄마의 양수처럼 바다는 고요하고 평화로웠다.

혼자서 나그네가 되면 가장 순수하고 투명해진다고 어느 스님이 쓴 글을 본 적이 있다. 그 말은 적어도 내겐 꼭 맞는 이야기였다. 나는 통영의 바다 앞에서 자유롭다는 게 뭔지, 온전한 휴식이 뭔지를 알 수 있었다. 나는 바다 냄새로 시장기를 채우는 법을 알았고, 그 냄새로 허한 마음도 채웠다.

살아 있는 모든 것은 움직인다. 그 움직임이 미세해서 보이지 않더라도 설상 살아있는 그 모든 것들은 움직인다. 마찬가지로 잔잔해 보이는 바다가 실은 끊임없이 흐르듯, 내 삶도 하나의 흐름이라는 걸 실감하는 순간들이었다. 틀에 갇혀 안주하다 보면 굳어져 버리듯, 굳어지면 고인 물처럼 생기를 잃듯, 나는 그간 껍이나 시들어 있었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살아 있는 것은 무엇이든 움직인다. 통영의 바다처럼...

결국 3일의 여행에서 건진 것이 있다면 그건 다름 아닌 '본래의 나'였다.

현재 나는 스물 둘의 나이를 먹고, 그 나이만큼의 무게를 지고 살아가고 있는 중이다.

사람이란 워낙에 영악한 동물이라 나는 다시는 돌아갈 수 없을 것만 같던 학교를 태연하게 다니고 있으며, 지각을 면하기 위해 택시를 자주 이용하는, 여전히 게으르지만 나름의 '책임'을 아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 게다가 그 사소한 '책임'마저 수행해 내지 못했을 땐, 다음 시간에라도 일찍 들어가 하다못해 칠판이라도 지우는... 어느 정도 '반성'이란 것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 나는 더 이상 '보여지는 나'를 연기하지 않으며, 넓은 바다처럼 내 삶에도 여백을 둬으로써 행복해지려고 노력하는... 조금은 철이 든 스물 둘이 되어가고 있는 중이다. 물론 아직도 몇몇 사람들은 내게서 오만과 자기 방어를 찾아내고 질책하지만, 나는 그것 역시 받아 안으려고 노력한다. 아직은 습관화된 관념과 익숙해지지 않은 일에 대한 수줍은 망설임으로 나의 생각은 더디게 움직임으로 나타난다. 그것은 깊이 생각하고 반성한 일일수록 더욱 어설픈 표현되지만, 그것은 내게 받아들이는 마음이 없어서라기 보다는 그 방법을 잘 모르는 탓이어서라고 가끔은 스스로에게 위안도 한다.

복학을 하고 선배가 내게 말했다. 하는 일도 없이 뭐가 그리 바쁘냐고... 나는 웃음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모든 살아있는 것이 움직이듯, 잔잔한 바다가 끊임없이 물결을 일으키듯, 나도 그렇게 움직이지 않으면 시

들고 무디어져서 생기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긴 대답은 하지 않았다. 왜냐면 받아들일 자세를 배우는 사람에겐 가끔 논리적인 대답보다 웃음의 여유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렇게 나를 달래고 독려하고 혹은 꾸짖으면서..., 그러면서 스물 셋을 준비한다.

11월이 되고 꽤 오래간만에 자갈 마당에 갔다.

자갈 마당 중간쯤에서 숨을 몰아쉬며 걸터앉은 나는 언제나 그러한 것처럼 아버지를 떠올린다. 아버지의 모습은 내가 어떻게 아버지를 떠나 보내고 살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미화시킨 상태인...

어린 가지 부러지면 수액으로 감싸듯... 상처 입은 짐승 제 상처 핏물... 더러워진 물이 스스로 자정 하듯...

바다처럼 흐르는 시간 속에 아버지는 상처도 아니고, 아픔도 아닌, 나를... 나만을 위한 하나의 공간이었던 것처럼 생각되어진다.

아버지도 그러할까... 아버지에게도 내가 자정되어 흐르는 바다처럼 기억되어질까... 초록빛 바다가 다시 쪽빛을 띌 수 있을까...

바다를 등에 지고 다시 걷는다. 바다를 등뒤에 두고 걸을 때, 나는 다시 숨을 몰아 쐬다.

1년 전 이 곳에서 나를 '초록빛 바다'라고 했던 그 선배는 지금 나의 모습 속에서 어떤 색깔의 바다를 볼까... 1년 전 너무 푸르러서 나의 초록빛을 부끄럽게 만들었던 통영 바다는 지금 나의 모습 속에서 흑여 약간의 동색을 느끼지는 않을까...

12월이 되면... 이 해가 가기 전에 통영 바다에 가볼까 한다. 1년 전 그때보다 조금은 스산해져 있을지도 모르지만 적어도 나는 그때와는 조금 달라진 모습으로 그 바다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초록빛 바다'를 닮았던 내가 그 바다 앞에서 쪽빛으로 정화되었음을 나는 꼭 한번 확인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그 바다 앞에 설 것이다. 그리고 조금은 덜 부끄럽고, 또 조금은 생기있는 모습으로 그 바다를 대할 수 있을런지도 모른다.

이제 더 이상 엄마의 양수 위를 떠 다니는 꿈은 꾸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차라리 쪽빛 바다를 힘차게 헤엄치는 꿈을 꾸리라 믿어본다.

꿈속에 나는 몸을 활짝 열고 바다를 헤엄칠 것이다.

끊임없는 움직임으로 나는 그렇게 밤새 바다 위를 떠다닐 것이다.

그건 완벽한 내 모습이고 자유일 것이다.

